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조 용 운*
(성균관대학교)

조 경 훈
(성균관대학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경제생활의 안정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삶의 질과 그것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파악한다. 더불어, 두 집단 -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의 상이성에 착안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방법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둘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는 분석대상인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산형성제도는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용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 삶의 질, 정신건강요인,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

이 글의 초고는 201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족한 논문을 토론 해주신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의 결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조용운, 성균관대학교(drcho815@skku.edu)

■ 투고일: 2014.4.11 ■ 수정일: 2014.6.5 ■ 게재확정일: 2014.6.24

I.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풍요가 도래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관적인 안녕(subjective well-being) 혹은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self-rated life satisfaction)에 대한 조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삶의 질에 대한 준거 틀로 기능하고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도 인식의 궤(軌)를 같이하며, 삶의 질을 연구하는 집단이나 개인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민성길 외, 2002; Kajanoja, 2002). 그럼에도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란 그리 녹녹치만은 않아 보이는데, 삶의 질이라는 개념규정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기관인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Group(WHOQLG)은 삶의 질에 대하여 “개인들이 목적·기대·관심사와 관련된 문화 및 가치체계의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한 그들의 인식”으로 정의내리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Group, 1995: 1405). 개인 연구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삶의 질의 영향 요인으로 인적자본·사회자본·천연자본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다차원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Sirgy, 2011).

이렇듯, 삶의 질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주관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항목들은 사회문화적 맥락(sociocultural-context)에 따라 새로운 조합 및 재배열 될 수 있기에 사회와 문화를 고려한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이 적절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칭하는 ‘객관적 복지(objective welfare)’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life satisfaction)’에 주목해보면, 늘 그러한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사실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Moller, 2011: 192).¹⁾

1) 주관적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하는 이론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요소인 객관적 수준만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상태, 삶에 대한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수용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장애역설이론(The Disability Paradox)’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Albrecht & Devliger, 1999; Helms & Austin, 2005). 비장애인 경우,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득과 행복 내지는 삶의 수준의 관계에 대하여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위를 대리하는 개념인 소득의 측정을 통하여 소득대비 행복이 반드시 연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Easterlin, 1995; 2001).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삶의 질에 대한 판단기준을 객관적 복지(경제적 능력)에 두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삶의 질은 단면적 지표가 아닌 복합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의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가를 판단하는 준거과정에서 여전히 그러한 양태(樣態)를 띤다. 객관적 삶의 조건은 개인의 수용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가치관 및 기대수준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임희섭, 1996). 그러므로 '누구(대상집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어떠한(제도설계)'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Felce & Perry, 1996).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두 집단을 동일한 선상에 놓아, 이론적 고민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론적 관점(holistic approach)을 견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매우 중요한 작업과 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이질적인 집단(heterogenous group)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두 집단을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이에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소득과 자산)이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논증하고,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소득과 자산)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장애인·비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요인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소득과 자산이라는 경제적 지표가 이론적·경험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전체적으로 조망(眺望)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 특히 경제적 상태와 정신건강요인에 집중하였다. 분석과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첫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연구의 분석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분석의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에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삶의 질 관련 연구동향: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적 영역에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통해 경주되어 왔다(석재은 외, 2005; 강상경, 2012). 그럼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비교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업적의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두 집단(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이 연구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박자경과 엄명용(2009)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 안에서 장애 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지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사이에 설명을 가능케 하는 작동원리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장애수용정도의 매개적 역할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지수(2007)의 연구는 장애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 관련요인을 밝히고, 구조모형에서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남녀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의 심각성이 라는 객관적 조건보다 자존감, 사회적 지지 등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변인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자존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남성장애인은 사회적 지지가 보다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드물게도, 김태일과 김수용(2009)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두 집단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요인분해를 사용하여 삶의 질 격차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입, 여가, 주거환경, 대인관계, 전반적 생활만족 등의 복합적인 항목을 삶의 질로 규정하고,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분석의 목적과 대상이 다른 데이터(노동패널과 장애인 고용패널)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모집단(population)의 이질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석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기술한 선행연구들은 상당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 비교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개별 집단의 삶의 수준에 대한 양상과 영향요인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각 집단의 삶의 질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상당한 함의를 제시한다. 그러나, 상이한 자료를 통한 비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회와 문화 안에서 그들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은 분명 한계를 지닌다(Felce & Perry, 1996).

둘째,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개별단위 수준에서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해왔다(김봉선, 2007; 이지수, 2007; 김승권 외, 2008; 박자경, 2009; 오혜경·정덕진, 2010). 더군다나, 특정 영역(여가, 고용, 취업 등), 특정 계층(기혼 여성, 지체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지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인지한 최근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한계점의 극복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가 가능한 국가수준의 데이터(national representative data)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권재숙, 2012; 김민영, 2013; Avolio et al., 2013; Addabbo et al., 2014). 특히, Avolio와 동료연구자들의 최근의 연구(2013)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분석집단을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중응답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방법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조건(demographic structure)’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라는 정서적 변수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Avolio et al., 2013).

2. 자산, 소득 그리고 삶의 질

일반적으로 자산과 소득은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위상(位相)을 나타내는 성적표’로 비유(Okun, 1975)되기도 하는 등 경제적 능력의 측정에 유용하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어 혼용되어 널리 사용되어왔지만, 본질적 특성이 다르기에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구별짓기’ 위하여 자산과 소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먼저, 미시경제학자들은 소득은 가구원이 일상생활에서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으로 ‘유량(流量: flow)의 속성’을 지니며,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반면 자산은 이러한 유동성 자원이 축적되는 ‘저량(貯量: stock)의 특성’을 가지며, 가구의 경제수준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herraden, 1991; Shapiro & Wolff, 2001). 특히, 이러한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한, Spilerman(2000)은 우리에게 자산과 소득을 개념적으로 구별짓는 해안을 제공한다(Spilerman, 2000: 500). 첫째, 자산은 소득과 달리 노동과 여가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소득에 영

향을 미치는 건강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자산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질병 또는 실업 등은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산을 소비하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다. 넷째, 자산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책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득은 실업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자산은 그 위기를 완충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자산과 소득이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에게 어떠한 맥락에서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른 차원에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경험적인 연구들 역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이현송, 2000; Diener, 1992; Fujiura et al., 1998; Parish et al., 2010). 특히 Heady와 Wooden(2004)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들은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bility)인 자산과 소득이 가구의 안녕과 불안(well-being and ill-being)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가구의 좋은 경제적 환경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형성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함의를 시사한다(Heady & Wooden, 2004).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Waldrop과 Stern의 자료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의 가족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긴급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 소득에 비하여 더욱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하겠다(Waldrop & Stern, 2003).

그런데, 실제로 이처럼 유용한 기능을 행하는 자산과 소득의 실증데이터를 살펴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통계지표들은,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은 근로활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곤궁(困窮)하고 자녀교육 등 그들의 인생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기존의 선행연구들 역시 소득과 장애인의 삶의 질의 관계를 제시한다(신승배, 2009; 이진용 외, 2009; Hosain et al., 2002; Jo & Kulys, 2008).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의 가족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적은 양상(more expenses, less income)’을 띠고 있어 자산을 소득에 비하여 더욱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산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선우, 2008; 윤상용 · 김태완, 2012; Parish et al., 2010).

3. 경제적 상태와 삶의 질에 대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효과

우리는 앞서 여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두 집단의 경제적 상태와 삶의 질의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받은 정신건강요인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보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Faris와 Dunham(1939)의 논의 이후, 우리나라에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강상경·권태연, 2008).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온존(溫存)해 있음을 제시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를 지각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엄태완, 2006). 성준모(2010)의 연구는 이러한 논거를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가구원과 저소득층 가구원 모두 주관적인 가족수입 만족도가 개인의 우울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정신건강요인의 다른 한 축(軸)인 자아존중감 역시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최영애, 2003). 선행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이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지표만으로는 적절히 평가될 수 없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 통계치와 달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종민·김서용, 2002).

요컨대, 특정한 상황(장애)에 맞닥뜨린 개인 모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존 연구들 역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혼재된 실증결과(mixed evidence)를 제시하고 있다(Ubel et al., 2005; Fellinghauer et al., 2012).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실제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신건강요인의 완충효과(buffering effect)의 차이에 기인하여 개인의 삶의 질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다 할지라도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질은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An, et al., 2008; Han & Hong, 2011).

경제적 지위(economic status)와 삶의 질의 관계 속에는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요인으로 대변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상태와 삶의 질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상태는 정신건강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거에 근거하여, 그들의 경제적 상태가 정신건강요인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현(具現)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소득과 자산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객관적 경제상태가 개인의 정신건강요인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방법: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구성된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SEM Multi-group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구조방정식 접근을 실시한 이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방정식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과 다중집단분석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구성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를 설정한다. 둘째, 구성된 측정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분석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균·표준편차를 알아보고 T-test를 실시한다. 넷째,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한 구조모형을 분석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 값을 반영하여 수정모형을 도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의 직·간접효과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구조모형의 차이를 분석한다. 우선 한 집단에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다른 집단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하여 구조가중모형과 비제약모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확인결과 만약 차이가 있다면, 해당 세부경로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한다(이순목·김한조, 2011).

특히, 구조방정식의 특성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측값(missing value)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대체방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여 이를 처리하였다. 다중대체방법은 하나의 대체값을 구하는 단일대체법과 달리, 다수의 후보값 중 무작위로 선정한 대체값을 추정하여 이를 계수로 통합하는 방식이다(Schafer, 1999; King et al., 2001; Little & Rubin, 2002). 이 연구는 이러한 구조방정식 다중집단의 방법론적 절차를 준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자료의 성격과 대상

본 연구는 2012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Korea Welfare Panel Study 7th Wave)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정부승인으로 이루어지는 지정통계조사로서, 소득계층별·경제활동상태별·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에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최근의 자료로 2012년에 조사된 7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있으며, 7차년도 데이터는 원(原)표본으로 유지된 5,270가구와 탈락률(attrition rate)의 보존하기 위해 신규로 추가된 461가구를 더한 5,731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2).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의 핵심변수라 할 수 있는 소득·자산·우울증·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풍부한 설문문항을 담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가구용(5,731가구)과 가구원(14,601명)을 결합한 데이터 셋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IBM SPSS 21과 Amos 21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구성과 측정

연구과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적 상태, 정신건강요인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종속변수: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삶의 질

본 연구는 일상생활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ing)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삶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거주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수입현황 만족도’, ‘여가활동수준 만족도’, ‘직업만족도’, ‘결혼생활만족도’ 등의 총 8문항을 다면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입체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독립변수 1: 자산

‘순(純)자산(Net Worth)’은 해당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산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산 개념은 한 가구의 장기적 경제적 안정을 나타내는 지표이다(Mckernan & Sherraden, 2008). 총자산은 거주주택가격,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가격, 기타재산의 합으로 구성되고, 총부채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켓돈, 기타부채의 합으로 산출된다.

순자산은 현재가치의 부채를 고려하여 시장가치가 있거나 재화로 대체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팔 수 있는 부를 반영하는 잠재적 소비자원으로 복지의 수준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개념이다(Haveman & Wolff, 2004). 연구는 이러한 순자산의 개념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한다. 금액(단위: 만원)으로 조사된 데이터와 5점 척도로 조사된 인식사이에 분석의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변환 과정이 필요하였다. 구체적으로 60만원 미만은 1로, 6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을 2로, 12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을 3으로, 24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을 4로, 36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을 5로,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을 6으로, 1,200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을 8로, 6,0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을 9로, 1억 2,000만원 이상 3억 6천만원 미만을 10으로, 3억 6천만원 이상을 11로 범주화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²⁾

다. 독립변수 II: 소득

본 연구에서 소득은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즉 경상소득과 사회보장 부담금 및 소득세를 합하여 사용한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복지패널은 각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문항을 제공하고 있어 자료에 대한 별도의 가공은 필요치 않으나, 소득을 가구 수준에서 분석단위로 다루는 경우, 가구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소득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해당 가구구성원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표현방식은 k가구의 연간소득을 ' I_k ', k가구의 가구원수를 ' n_k ', 로 표현하였을 경우, 균등화지수로 조정된 k가구의 소득을 구하기 위한 산식(算式)은 k가구의 연간가구소득에 k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준 값 즉, $I_k/\sqrt{n_k}$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균등화 된 소득(equivalised income)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500만원 미만은 1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2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을 3으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을 4로,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을 5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을 6으로, 3억원이상 5억원 미만을 7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8로, 10억원 이상을 9로 범주화하였다(각주 2 참고).

2) 이러한 범주화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국가수준에서 조사(장애인고용패널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자산의 질문항목에서 개방형 질문 뿐 아니라, 범주화한 폐쇄형 질문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에 대한 항목을 보충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연속(連續)형 변수에 비하여 범주(範疇)형 변수가 지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변수를 유형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방법론이 가지는 변수사용의 제약, 둘째, 추후 연구와의 비교가능이다. 방법론이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주형 변수의 사용을 통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추후 관련연구와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매개변수: 정신건강요인(우울감과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정신건강 관련 요인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척도는 CESD-11(Radloff, 1977)을 활용하였고,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을 사용하였다. 척도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문항들은 역(易)코딩 처리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우울감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92인 것으로, 자아존중감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7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과 조작화를 통한 변수의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변수설명			변수의 구성 및 측정
종속변수	삶의 질	삶의 질	5점 척도(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 : 총 8문항(가족들과의 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거주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수입현황 만족도', '여가활동수준 만족도', '직업만족도', '결혼생활만족도')
독립변수	경제적 능력	자산	순자산(만원) = 총자산 - 부채를 범주화
		소득	가구균등화 소득 = 연간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를 범주화
매개변수	정신건강요인 I	우울감	4점 척도(극히 드물다(1)~대부분 그렇다(4)) 총 11문항
	정신건강요인 II	자아존중감	4점 척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1)~항상 그렇다(4)) 10문항

IV. 분석결과

1. 변수들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46.1%와 53.9%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 14,601명 중 장애인의 비율은 8.9%인 1,300명이며, 비장애인은 91.1%인 13,30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초적 내용은 장애여부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응답 대상전체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평균금액은 약 1,28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의 경우 약 1,318만원, 장애인은 약 9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금액이 약 22,786만원, 비장애인 23,362만원, 장애인 약 16,887만원으로 비장애인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보다 소득 및 자산 등 경제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거나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 집단별 소득 및 자산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수	장애인 평균(편차)	비장애인 평균(편차)	전체 평균(편차)	t	
가처분소득	984.29(669.90)	1,318.47(909.34)	1,288.71(895.69)	-12.912 ***	
자산	총재산	19,298.62(36,802.15)	27,234.68(42,884.08)	26,528.09(42,437.10)	-6.444 ***
	총부채	2,411.39(6,149.01)	3,872.37(8,274.62)	3,742.29(8,118.49)	-6.201 ***
	순자산	16,887.24(35,528.56)	23,362.31(40,841.87)	22,785.81(40,438.12)	-5.516 ***

*** p<0.001

한편,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하여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집단별 평균에 대한 분석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장애인에 비해 비장애인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장애인의 평균이 비장애인의 평균이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문항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좋은 성품을 지녔다는 문항과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장애인이(각 3.10, 4.12) 비장애인에 비해(각 3.09, 4.08)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문항에 대해 장애인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유무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장애인 각 3.74, 3.55 · 비장애인 각 3.88, 3.73),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삶의 질에 대한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애인 2.51, 비장애인 2.72), 장애유무를 막론하고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문항은 역시 건강에 대한 만족도로, 비장애인은 3.30이라는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은 평균 2.69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분석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복지패널의 문항 및 이를 묶은 상위 개념은 표준화된 척도(standardized scaling)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7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므로, 통계적 요인분석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울감(Cronbach's $\alpha=0.992$) · 자아존중감(Cronbach's $\alpha=0.979$) · 삶의 질(Cronbach's $\alpha=0.795$)은 각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형의 자유도는 374, χ^2 은 50,350.305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0.923, NFI=0.922, GFI=0.756, SRMR=0.037, RMSEA=0.096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도 역시 모든 변수의 결과가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으로 구성된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표준화된 회귀 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인 요인적재량은 일반적으로 0.7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관측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을 제거할 수 있다. 삶의 질의 인식에서 다수의 문항이 표준화한 요인적재량 수치가 0.7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제거를 할 수 있으나, 전체 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설문 의 설계를 고려하였을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았다(표 3 참고). 다만, 이로 인해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0.795)가 다른 두 요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GFI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문항	요인 적재량 (표준화)	변수	문항	요인 적재량 (표준화)	변수	문항	요인 적재량 (표준화)
우울감 (Cronbach's alpha= 0.992)	p0705_09	0.955***	자아 존중감 (Cronbach's alpha= 0.979)	p0705_20	0.921***	삶의 질 (Cronbach's alpha= 0.795)	p0703_05	0.462***
	p0705_10	0.948***		p0705_21	0.921***		p0703_06	0.565***
	p0705_11	0.964***		p0705_22	0.894***		p0703_07	0.454***
	p0705_12	0.940***		p0705_23	0.884***		p0703_08	0.496***
	p0705_13	0.929***		p0705_24	0.887***		p0703_09	0.626***
	p0705_14	0.971***		p0705_25	0.935***		p0703_10	0.616***
	p0705_15	0.917***		p0705_26	0.921***		p0703_11	0.568***
	p0705_16	0.982***		p0705_27	0.902***		p0703_12	0.839***
	p0705_17	0.976***		p0705_28	0.907***			
	p0705_18	0.982***		p0705_29	0.918***			
p0705_19	0.959***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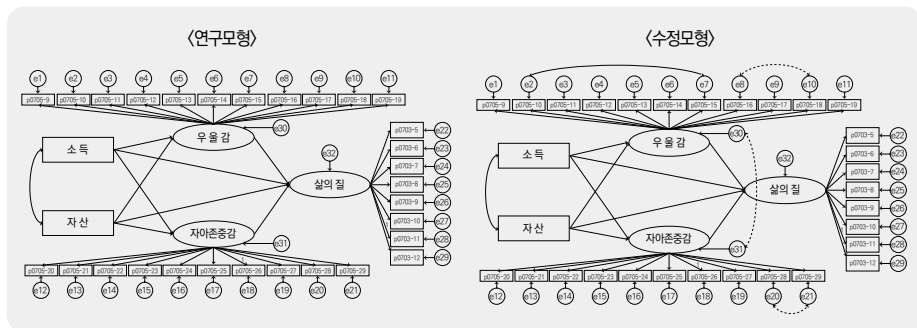
3. 연구모형 검증

연구과제의 해결을 위해 구조모형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우선,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표본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수 추정을 위한 최적화된 매개변수 생산을 위해 최대우도법

(ML)을 가정하였다. 최대우도법은 표본의 크기가 큰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배병렬, 2011).

<표 4>는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증분적합지수인 CFI(비교적합지수)·NFI(표준적합지수)와 절대적합지수인 GFI(적합지수)·SRMR(표준화 된 잔차평균자승이중근) 및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모두 적정 모형적합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형의 수정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모형의 변수 및 요인구성은 앞서 이미 충분한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설계되었으므로, 변수의 추가 또는 제거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변수 간 설정된 인과관계 역시 이론적으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로를 추가·제거하는 것도 고려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으로 Amos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수정지수(M.I.)가 권장된다. 수정지수는 고정모수가 자유모수가 될 경우 모형의 χ^2 값의 향상수준을 알려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4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 수정할 것을 권장한다(배병렬, 2011: 288-289).³⁾

그림 1. 연구모형 및 수정모형



3) 연구의 수정모형을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e8과 e10을 우선적으로 공분산을 연결하고(요인 내 측정오차, M.I.=12425.334), 다음으로 e30과 e31(잠재요인의 구조오차, 11676.191), 그리고 e20과 e21(요인 내 측정오차, 1345.905), 마지막으로 e2와 e7(요인 내 측정오차, 1267.264)을 자유화하였다.

표 4. 연구모형 및 수정모형 분석결과

Model	df	χ^2	χ^2/df	NFI	GFI	CFI	RMSEA	SRMR
cut			<5	>.90	>.90	>.90	<.05	<.05
연구모형	427	75921.120	177.801	.884	.783	.885	.110	.426
수정모형	423	33893.787	80.127	.948	.854	.949	.074	.038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GFI의 경우는 0.9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준(satisfactory fit)은 아니나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0.8 < GFI$)이라 할 수 있으며(Tasmin & Woods, 2008; Liang et al., 2011), RMSEA 통계치도 0.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배병렬, 2011; Steiger, 1990).

전체모형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5> 참고), 자산에서 우울감의 인식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과 우울감의 인식에 대한 경로계수는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모두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상태가 양호할수록 정신건강요인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표준화 계수 0.067)보다 자산(0.095)이 자아존중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보유한 자산의 크기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엄태완, 2006; 성준모, 2010).

한편, 소득과 자산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현송, 2000; Parish et al., 2010).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계수에서 동일한 값(0.167)이 도출되어 소득 및 자산이 삶의 질의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울감의 인식(-1.065)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의 인식(1.105)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의 긍정적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우울감은 삶의 질 인식에 대해 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변수 간 경로계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로계수(표준화)	S. E.	p-value	
소득	우울감	-0.081(-0.052)	0.014	0.000	***
	자아존중감	0.091(0.067)	0.012	0.000	***
자산	우울감	-0.006(-0.010)	0.005	0.265	
	자아존중감	0.052(0.095)	0.005	0.000	***
소득	삶의 질	0.085(0.167)	0.004	0.000	***
자산		0.034(0.167)	0.002	0.000	***
우울감		-0.351(-1.065)	0.006	0.000	***
자아존중감		0.413(1.105)	0.007	0.000	***

***p<0.001

하지만, <표 5>의 분석결과만으로 경제상태가 정신건강을 거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단정하기는 어렵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를 산출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직접효과는 경로분석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며, 간접효과는 중간에 매개되는 경로를 곱한 값이며,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것이다. 간접효과 및 총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양측 90%의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회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자산의 경제상태가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총효과의 표준화 계수는 각 0.297과 0.283으로, 우울감의 인식(-1.065) 및 자아존중감의 인식(1.105)에 비해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고). 요컨대, 삶의 질 인식에 있어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인식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지수, 2007; Sen, 1993).

표 6. 간접효과 및 총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표준화)	간접효과(표준화)	총효과(표준화)
삶의 질	소득	0.085(0.167)	0.066(0.130)	0.151(0.297)
	자산	0.034(0.167)	0.024(0.116)	0.058(0.283)

4.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중집단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경제상태와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다른 집단과의 모수치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는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equality constrained model)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가중(structural weights)을 가한 모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적 가중 모형이라 함은, 측정모형에서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가중(measurement weight)에 측정변수절편에 대한 집단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적으로 가한 것으로 집단 간 비교분석에 있어 적합하다(김계수, 2010).

표 7. 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결과

모형	NPAR	χ^2	df	p-value	χ^2/df
비제약	146	34380.995	846	.000	40.639
구조가중	112	34481.961	880	.000	39.522

<표 7>을 통해, 집단 간 제약 없이 각각 모수를 다르게 추정하는 비제약 모형과 구조적으로 모수가 동일하도록 모든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집단 간 차이는 χ^2 변화량을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

분석결과, 비제약 모형은 $\chi^2(846)=34380.995$ 이었으며, 구조가중 모형은 $\chi^2(880)=34481.96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두 모형 간 변화량은 $\chi^2(34)=100.966$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χ^2 분포표에서 0.001의 유의수준인 65.248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구조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경제상태 → 정신건강 → 삶의 질 인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모형은 인과관계 여부와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도출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상태는 물론 전반적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인식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이후에 각 경로에 있어 세부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비로소 가능한데, 세부적인 분석은 구조가중을 통한 집단 간 비교 분석을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각 경로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집단 간 차이 세부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χ^2	χ^2 변화량	개별 표본분석 경로계수 a)	
				장애	비장애
소득	우울감	34479.697	2.264	-0.110*	-0.071***
	자아존중감	34477.446	4.515**	0.007	0.098***
자산	우울감	34477.141	4.820**	-0.020	-0.003
	자아존중감	34478.131	3.830*	0.060**	0.051***
소득	삶의 질	34462.944	19.017***	0.051**	0.034***
자산		34481.851	0.110	0.040***	0.034***
우울감		34481.083	0.878	-0.347***	-0.350***
자아존중감		34481.712	0.249	0.417***	0.410***

a) 비표준화 추정치

*p<0.1, **p<0.05, ***p<0.01

<표 8>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단 간 차이 세부 분석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는 소득 → 자아존중감 인식에 대한 것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소득의 많고 적음이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므로 소득이 자아존중감에 적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산이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산 → 우울감 인식은 장애인의 경로계수(-0.020)가 비장애인의 경로계수(-0.003)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지 않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자산 →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집단(0.060)이 비장애인 집단(0.051)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소득에 경우에만 비로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장애인 집단(0.051)이 비장애인 집단(0.034)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구조가중모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상태가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에 있어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집단 간 경로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 →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인식, 그리고 소득 →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인식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로에 대해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자산이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자아존중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비장애인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경로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앞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경우 소득에 비해 자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⁴⁾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집단 간 표본 수의 차이 및 응답 성향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득이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양 집단 모두 유효하였으나, 장애인 집단이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낮으나, 삶의 질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득의 정도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삶의 질은 주관적 인식에 더해 객관적 상태의 지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소득에 따른 객관적 경제지표의 개선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선우, 2008; Parish et al., 2010).

4) 한 심사위원은 필자와 상반된 견해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자산프로그램의 필요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장애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소득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고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속성의 차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은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수단이지만, 해당 집단에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와 관련지어 설명하면, 앞선 이론적 논의를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특성상 자산이 소득에 비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였다.

V. 결론

1. 연구의 결과 및 함의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정신건강요인을 경유하여 그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경험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장애인 집단은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자선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경험적으로 확인된 반면,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변수인 소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동일한 경제적 상태라 할지라도 정신건강요인에 따라 삶의 질은 상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동일한 경제적 상태라 할지라도 정신건강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생활만족도 및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Multiple Positive Impacts: MPI)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건강요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관리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지역사회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공재원에 의해 예방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Borus, 1978).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우울증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분석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자선이라는 경제적 지표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선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현재,

2011년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이 도입된 이래,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약 53만원, 부부가구에 약 85만원이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하지만, 이 제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증의 장애로 인해 노동을 수행하기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특성을 띤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적용대상(coverage)에서 벗어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死角地帶) 역시 발생할 수 있다(박은수, 2011: 61-94; 이성규, 2011: 289-291). 실제로 그들의 선호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 중 현금성 급여인 장애수당의 지급을 선호하는 장애인은 2010년 기준으로 45.1%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18.7%에 비해 두 배 이상 상회하는 결과를 제시한다(통계청, 2010).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지닌 가족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출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일반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가구원 전체를 위한 지출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경제적 궁핍을 경험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에,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절실하다(김정호, 2002; 이진용 외, 2009; 임재현, 2012).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삶의 질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현수 외, 2011).

주지한바와 같이, 한 나라의 국민들의 소득분배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분배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소득보장정책이다(이준구, 2003; 김태성, 2009). 더군다나 장애인소득보장정책에서 고려할 사항은 급여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추가비용의 보전'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선우, 2009: 245).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인 자산형성제도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의 부여와 더불어 사회적 지위라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하겠다. 더불어 이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법적 권리, 즉 수급권을 가진 주체로 간주하고(김용득 외, 2007; 신유리 외, 2013; Oliver, 1996; Drake, 1999; Priestley, 2010), 궁극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Prabhkar(2009)가 제시한 자산을 시민권(citizenship)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로 규정하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당위적 측면에 더하여, 장애인 정책의 대표적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주류화(mainstreaming

strategy)'와 '개별화(individualized strategy)'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기존 제도 내(소득보장정책)에 장애인구 집단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제도(가령, 장애인저축법 혹은 공동저축프로그램)를 도입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한다(윤상용 외, 2010; 서해정 외,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캐나다의 등록장애인저축법(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과 미국 뉴욕에서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 공동저축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캐나다 등록장애인저축법은 중증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미래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 가구 소득에 따라 매칭액을 1~3배 차등하여 지원한다(Service Canada, 2014). 미국 뉴욕에서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 공동저축 프로그램 역시 그러한데, 뉴욕 주(州)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공동 참여자가 있는 경우 함께) 중 지난 3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최초주택구입자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데, 적격성 검토(entitlement)를 통해 저축계좌를 설정하고 주택을 구입하게끔 하는 제도를 말한다(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4).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비장애인에게도 부정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국민은 더 편하다(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2007: 182-186)'라는 어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시범사업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나, 어느 정도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서용석, 2000; 서울시복지재단, 2009),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향후 시행될 제도에 반영한다면,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고려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상태와 정신건강요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삶의 질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과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한편, 분석방법의 한계로 말미암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가령, 장애등급, 장애특성) 접근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한 특성(가령, 같은 생애주기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혹은 유사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을 가진 개인들끼리 짝을 지어 실제로 그러하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는 대표적 유사실험설계방법론(Quasi-experimental Method)인 성향점수매칭기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Guo & Fraser, 2009; Khandker et al., 2010)을 사용하여 편포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실시할 경우, 두 집단의 편(bias)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의 속성(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을 다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비교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라는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하여 장애인복지 정책 및 실천영역에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경제적 특성인 소비와 자산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물론, 본 연구는 경제적 상태를 소득과 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기인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삶의 질 격차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다양한 지표의 합으로 구성되는 소득과 자산을 하나의 변인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였기에, 소득 및 자산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이 지니는 특성이 사상(捨象)되어 상세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원론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틀을 활용하여 소득과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항목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여 분석에 사용한다면, 소득 및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풍성한 담론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용운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거정책, 복지인식이며, 현재 주거정책, 복지인식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rcho815@skku.edu)

조경훈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대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정책으로, 세부적으로는 공공복지정책, 공공갈등관리, 인적자원관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czar3135@gmail.com)

참고문헌

- 강상경, 권태연(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pp.332-355.
-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pp.91-119.
- 권재숙(2012).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재활학과, 한신대학교, 경기.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레아카데미.
- 김민영(2013). 장애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김봉선(2007). 장애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 뇌성마비인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4), pp.5-28.
-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득, 김진우, 유동철(2007).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제5판. 서울: 인간과 복지.
- 김정호(200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김태성(2009). 복지와 경제. 서울: 청목출판사.
- 김태일, 김수용(200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격차 분석.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원회의실, 2009. 11. 19,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pp.263-284.
- 민성길, 김광일, 박일호(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서울: 하나의학사.
- 박은수(2011). 장애인 소득보장론: 장애인연금법 재정과정을 중심으로. 경기: 나남.
- 박자경(2009).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모형 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서울.
- 박자경, 엄명용(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장애수용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3(4). pp.1-23.

- 박종민, 김서웅(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108, pp.141-164.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주요업무참고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2007). *복지국가혁명: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 서울: 도서출판 밌.
- 서용석(2000). 자산지향적 사회정책: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7(1), pp.73-107.
- 서울시복지재단(2009).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 측정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서해정, 김동기, 김둘순, 현근식, 간기현, 박지연(2013).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 장애정책예산 및 장애영향분석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석재은, 최병호, 김용하, 박병현, 이상은, 홍경준 외(200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준모(2010).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pp.109-132.
- 신승배(2009).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285-312.
-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2013).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5(3), pp.5-28.
- 엄태완(2006). 저소득층의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1), pp.59-85.
- 오혜경, 정덕진(2010).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재활복지*, 14(3), pp.151-173.
- 윤상용, 김태완(2012). 장애인과 저축: 저축결정 요인과 고용상태 및 생활만족도 효과. *장애와 고용*, 22(3), pp.129-152.
- 윤상용, 김태완, 양정빈, 현명이, 김영미(2010).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남서울대학교.
- 이선우(2008).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 추가비용 계측: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2(3), pp.7-26.
- 이선우(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경기: 집문당.

- 이성규(2011). 한국 장애인 복지 발달사. 경기: 집문당.
- 이순목, 김한조(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일반화 또는 집단차 연구를 위한 다집단 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사회과학*, 43(1), pp.63-112.
- 이준구(200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2판. 서울: 다산출판사.
- 이지수(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pp.89-114.
- 이진용, 김부경, 은상준, 김윤, 김용익(2009). 서울시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용. *재활복지*, 13(3), pp.199-223.
- 이현송(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pp.91-117.
- 임재현(2012).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서울도시연구*, 13(4), pp.205-220.
-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pp.5-18.
- 최영애(2003). 노인들의 우울, 자존감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 pp.27-47.
- 최현수, 정혜숙,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조준용 외(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0). 2009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2012). 한국복지패널 6·7차년도 조사 자료 User; Guide.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ddabbo, Tindara, Sarti, Elena., Sciulli, Dario (2014). *Dis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in Italy*. Geneva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Université de Genève. Working Paper Series 14-02-1.
- Albrecht, Gary & Devlieger, Patrick (1999). The disability paradox: high quality of life against all odds. *Social Sciences & Medicine*, 48, pp.977-988.
- An, Ji-Young., An, Kyungh., O'Connor, Linda & Wexler, Sharon (2008).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mong Elder Korean Women: Focus on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9(2), pp.151-160.
- Avolio M., Montagnoli, S., Marino, M., Basso, D., Furia, G., Ricciardi, W & Belvis., A. G. (2013).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 Elderly Population: The Results of 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Current Gerontology and Geriatrics Research*, 2013, pp.1-6. DOI:10.1155/2013/258274.
- Borus, J. F. (1978). Issues Critical to the Surviv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9), pp.1029-1035.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pp.195-223.
- Drake, F. Robert (1999). *Understanding Disability Policies*. Hampshire: Macmillan Press Ltd.
- Drum, Charles., Horner-Jhonsen, Willi. and Krahn, Gloria (2008). Self-rated health and healthy days: Examining the “disability paradox”.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2), pp.71-78.
- Easterlin, A. Richard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pp.35-47.
- Easterlin, A. Richard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July), pp.465-484.
- Faris, E. Robert & Dunham, H. Warren (1939). *Mental Disorders in Urban Areas: An Ecological Study of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ses*. Oxford: University Chicago Press.
- Felce, David & Perry, Jonathan (1996). Exploring Current Conceptions of Quality of Life: A Model for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R. Renwick, I. Brown. & M. Nagler(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pp.51-62. London: Sage Publications.
- Fellinghauer, Bernd., Reinhardt, Jan., Stucki, Gerold & Bickenbach, Jerome (2012). Explaining the disability paradox: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Swiss general population. *BMC Public Health*, 12(1): 655. DOI:10.1186/1471-2458-12-655.
- Fujiura, G. T., Yamaki, K. & Czechowicz, S. (1998). Disability among ethnic and racial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9, pp.111-130.
- Guo, Shenyang, & Fraser, W. Mark (2009). *Propensity Score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Han, Chang-Keun & Hong, Song-lee (2011).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Patterns Among Korean Older Adults: Latent Class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2), pp.225-240
- Haveman, R. & Wolff, E. N. (2004).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for the U.S., 1983-2001.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2(2), pp.145-169.
- Heady, Bruce & Wooden, Mark (2004). The Effects of Wealth and Income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The Economic Record*, 80(SPECIAL ISSUE), pp.S24 - S33.
- Helmes, Edward & Austin, Lynne (2002). Quality of life in residential care. In Gullione Eleonora and Cummins, Robert(Eds). *The Universality of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A Multi-Disciplinary and Multi-National Perspective*. pp.105-128.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osain, G. M., Atkinson, David. & Underwood (2002). Impact of Disability on Quality of Life of Rural Disabled People in Bangladesh. *Journal of Health, Population and Nutrition*, 20(4), pp.297-305.
- Jo, Han-Jin. and Kulys, Regina (2008). Poverty of Disability Households and Antipovert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18(1), pp.39-52.
- Kajanoja, Jouko (2002). Theoretical basis for the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Gullione Eleonora and Cummins, Robert(Eds). *The Universality of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A Multi-Disciplinary and Multi-National Perspective*. pp.63-80.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handker, S., Koolwal, G, & Samad, H. (2010). *Handbook on Impact Evaluation: Quantitative Methods and Practices*. Washington: The World Bank.
- King, G., Honaker, J., Joseph, A., & Scheve, K. (2001). Analyzing Incomplete Political Science Data: An Alternative Algorithm for Multiple Impu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pp.49-69.
- Liang, Rong-Da, Ching-Sheng Chang & Tung-Sheng Wang (2011). The effect of

- service responsiveness and social emotions on service outcom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ervice firm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8), pp.3155-3167.
- Little, R. J. A. & Rubin, D. B. (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2nd ed. New Jersey: Wiley.
- McKernan, S-M. & Sherraden, M. (2008).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Washington: Urban Institute Press.
- Moller, Dan (2010). Wealth, Disability and Happiness. *Philosophy & Public Affairs*, 39(2), pp.177-206
- 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4). http://www.opwdd.ny.gov/opwdd_community_connections/housing_initiative/documents/SPA_Individual. 2014년 3월 21일 인출.
- Okun, M. Arthur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The Brookings Institution.
- Oliver, Michael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Hampshire and London: Macmillan Press Ltd.
- Parish, S. L., Grinstein-Weiss, M., Yeo, Y. H., Rose, R. A. & Arie, R. (2010). Assets and Income: Disability-based Disparit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Work Research*, 34(2), pp.71-82.
- Priestley, Mark (2010). Disability. In F. Castles, S. Leibfried, J. Lewis, H. Obinger, and C. Pierson(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pp.406-4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pp.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fer, J. L. (1999). Multiple Imputation: a Primer.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8(1), pp.3-16.
- Sen, 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The quality of life*, 1(9), pp.30-54.

- Service Canada (2014). <http://www.servicecanada.gc.ca/eng/goc/rdsp.shtml>. 2014.3.2. 인출.
- Shapiro, T. M. & Wolff, E. (2001). *Assets for the Poor: the Benefits of Spreading Assets Owne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Y: Armonk and London: M.E. Sharpe, Inc.
- Sirgy, M. Joseph (2011). Theoretical Perspectives guiding QOL Indicator Projects. *Social Indicator Research*, 103, pp.1-22.
- Spilerman, S. (2000). Wealth and stratification proc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497-524.
- Steiger, H. James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pp.173-180.
- Tasmin, Rosmaini & Peter C. Woods (2008). Linking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in *Innov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in Business Globalization: Theory & Practice*. pp.558-565. *Proceedings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 (IBIMA 2008)*, Kuala Lumpur.
- Ubel, Peter., Schwarz, Norbert., Loewenstein & Smith, Dylan (2005). Misimagining the unimaginable: The disability paradox and health care decision making. *Health Psychology*, 24, pp.S57-S62.
- Waldrop, J. and Stern, S. M. (2003). *Disability status: 2000*. <http://www.census.gov/prod/2003pubs/c2kbr-17.pdf>. 2012.10.1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1, pp.1403-1409.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s Economic Cap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Group Analysis

Cho, Yong-Un

(Sungkyunkwan University)

Cho, Kyung-Hoon

(Sungkyunkwan University)

Economic capability matters for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seek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income and asset)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We used 7th panel data sets (2011)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hich were collected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economic capability of disabled or non-disabled peop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he findings confirmed that how economic capability influences quality of life through mental factor as a mediato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mental health amo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Futhermore, we proposed that government initiate the asset accumulation program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Keywords: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s Economic Capability,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Factor,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Group Analysis